



병원근무자 절반 폭언 · 폭행 · 성희롱 등 시달려

보건의료노조, 직장폭력 가해자는 환자 · 보호자 · 의사 順

병원근무자 절반은 폭언 · 폭행 · 성희롱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지난 3~4월 두 달간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전국 110개 병원에 근무하는 2만 950명의 병원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올해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47.6%)이 직장 내에서 불쾌한 언행(폭언 41.0%, 폭행 5.5%, 성폭력 1.1%)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로는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폭언 70.1%, 폭행 83.7%, 성폭력 70.0%), 보호자에 의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65.6%, 폭행 21.6%, 성폭력 12.9%)

또한, 폭언의 경우에는 의사(36.5%)나 상급자(29.1%)에 의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폭언 · 폭행 · 성폭

력 경험에 대한 질문문항에 중복 표시함)

감정노동에 노출된 당사자들은 불쾌한 언행에 대해 대부분 참고 넘기는 경우(폭언 89.7%, 폭행 58.6%, 성폭력 60.5%)가 많았다. (폭언 22.4%, 폭행 37.6%, 성폭력 25.3%) 하지만, 법적 · 제도적 대응을 하는 경우는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기분과 관계없이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응답이 86.2%,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는 응답이 90.5%에 육박하는 등 감정노동 수행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병원 내에서 불쾌한 언행을 경험한 후 직장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은 비율은 폭언 · 폭행의 경우 39.7%에 불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거나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경우는 각각 10.3%, 13.1%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수행 비율과 소진의

정도를 실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기분과 관계없이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응답이 86.2%,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는 응답이 90.5%에 이르는 등 감정노동 수행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 종사자 또한 극심한 감정노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잠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32분으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잠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5~20분)을 고려하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2~3배 이상으로 나타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간호사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잠드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604분으로 간호사이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398분에 비해 206분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잠드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더 긴 것은 간호사 직종의 경우 3교대제에 따른 수면시간

의 불규칙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숙면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간 잠드는 횟수는 1~2회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4회도 2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주간 다시 잠들지 못하는 횟수도 1~2회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4회가 24.8%, 5회 이상도 12.3%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간호사 직종의 잠드는 횟수를 보면 3~4회의 경우 25.2%로 그 외 직종 종사자의 17.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주간 다시 잠 못드는 횟수도 5회 이상의 경우가 14%로 그 외 직종의 9.2%보다 더 높게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본인에 대한 수면상태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38.3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수면의 질이 좋다는 평가보다는 수면의 질이 나쁘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야간 교대 근무는 2급 발암물질로 규정될 정도로, 일정한 기간을 하는 야간교대근무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는 수면 장애가 27.8%(5831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근골격계 질환은 25.1%(5248명), 타박상 및 찰과상 9.7%(2025명), 결핵 등 감염 2.3%(48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우울증 1.5%(317명), 심혈관 질환 1.2%(260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의 경우도 응답자의 0.4%인 8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한 병원의 조치 및 보상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33.1%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극심한 감정노동(폭언, 폭행,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 낮은 수면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고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풍수해 취약지구에 대한 점검과 보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유성구 원신흥동 통장협의회, 공한지 재배 옥수수 어른들에게 전달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동장 백준홍)과 통장협의회(회장 이재홍)는 12일 공한지에 재배한 옥수수를 수확해 관내 어른들에게 전달했다.

도시민 정원 만드는 목적 1위는 ‘휴식’

농촌진흥청, 정원조성과 관리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도시민의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정원 모델과 골격계 질환은 25.1%(5248명), 타박상 및 찰과상 9.7%(2025명), 결핵 등 감염 2.3%(48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부산, 대전 등 6도시 지역 만 19세 이상 시민 508명을 대상으로 정원의 조성목적 및 방향, 식물선호도, 관리 및 교육방안 등에 대해 1:1 개별 면접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도시민들은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며 간단한 먹을거리 재배를 위해 정원을 조성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관심 위주의 공간뿐만 아니라 정원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과 환경적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다.

정원의 조성 목적은 휴식(25.4%), 마음안정(19%), 간단한 먹을거리 재배(15.7%), 집을 가꾸기(11.2%), 경관감상(8.8%) 순으로 나타났다.

정원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20~60대 전 연령에서 그늘과 바람 길을 제공하는 쾌적성, 환경오염 차단이나 정신적 위안을 주는 건강성, 정원의 자연성과 심미성의 선호도가 높았다.

정원에 도입한 식물의 유형을 계절, 형태, 기능별 특성에 따라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그늘 제공, 계절별 꽃 감상, 열매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정원의 관리에 병해충 방제와 식물관리, 체계적인 정원관리 방법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응답자의 68.9% 정도가 정원 관련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정원 관리의 어려움 항목에서 소유자는 벌레 발생, 체계적인 정원 관리 방법, 계절별 식물 관리방법, 관리비용 등을 들었고, 잠재 소유자는 벌레 발생, 관리비용, 체계적인 관리방법 순으로 소유자에 비해 관리비용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한편, 소유자와 잠재 소유자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교육내용은 병해충 방제방법, 식물 전정 및 정지방법, 파종 및 식재방법, 조성관리에 대한 종괄 방법 등의 순이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정원, 마을정원 모델개발 및 조성 기술, 정원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 조성 기술과 함께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정나라 박사는 “도시민은 정원 조성관리로 쾌적한 환경, 심미적, 정서적 만족감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정원 조성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고 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아 이용자의 특성을 생각한 관리기술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 박동민, 도시농업과 정나라 063-238-6065.

김정환기자

“공직자 부적절한 처신 다시는 안된다”

황 총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직무에 전념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정부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와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와 임직원들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최근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과 ISIL 등의 테러위협이 지속되고 브렉시트 여파와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그 어

느 때 보다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에는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의료비, 장례비 외에 추가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사고는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울러 “앞으로도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한편, 국회 특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주 울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신속 · 정확한 지진상황전파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과학적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등의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히 챙겨야 한다”며 “이번 지진으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곳은 없는지 등 안전조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총리는 “지난주부터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이번 주에도 일부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돼 있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고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풍수해 취약지구에 대한 점검과 보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이정복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hite
PALE LAGER

10년 간 끝던 효자지구 사업 기지가 떠나?

국토교통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해 '적극추진'하겠다는 검토의견서 제출

국토교통부가 정용기 국회의원에 대해 대전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적극추진'하겠다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10년 간 지지부진한 효자지구 사업이 중대분수령을 맞게 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대전 효자지구 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정용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에게 제출한 '대전 효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주택정비과) 문건

에 따르면, 대전 효자지구는 정용기 국회의원의 관심사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지역 우범화 우려가 있어 조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LH가 2018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추진경과' 보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변 주택거래 가격이 건설원가보다 너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사업성 확보가 매

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원가가 평당 81(만원) 가량인데, 주변 주택거래가가 600만원 가량으로 건설원가가 더 많아 사업성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검토의견을 통해서 『적극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LH가 구역축소, 민간공동사업 시행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토록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정용기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배석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LH 공사 박상우 사장에 효자지구 사업개선방안에 대해 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사업을 신속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세하게 질의했다. 이에 박 사장은 "효자지구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 필요시 직접 현장을 찾아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LH공사의 사업개선방안 내용에 따르면 ① 구역을 다소 축소하고 용적률을 올리면 845억원이던

당초 적자 예상액이 477억원으로 줄어들고, ② 여기에 평당 분양가를 700만원으로 올리면 적자폭이 352억원으로 줄고, ③ 민간이 참여하면 분양가가 조금 더 오르고 공사비가 절감되어 최종 62억원까지 적자폭이 줄어들게 된다.

27일 정 의원의 질의 이후 LH공사는 지난 7월 6일, 부서담당자가 지자체를 직접 찾아 추진방안을 협의했고, 오는 15일 지자체와 세부협의를 하겠다고 정용기의원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정복기자



제23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는 제231회 임시회를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 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인 ▲청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청양군 마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2건의 안건 처리, 주요사업장 단사, 부서별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양=정성범기자

청양군 먹는샘물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총2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청양군 푸른청양21 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2건의 안건 처리, 주요사업장 단사, 부서별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양=정성범기자

당진시의회, 발로 뛰는 현장중시 의정활동 전개

시정질문 대비해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실태 및 추진사항 청취 점검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운은 제3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시정질문에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주요사업의 실태 파악 및 추진사항을 청취했다.

1일차 현장방문은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축산분뇨

저장소, 석문산학 융합지구, 행당도 파머스 마켓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2일차 현장방문은 면천면 면천수질개선사업장을 시작으로 남부사회복지관, 삼교천 수질개선사업

을 끝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안사항에 대한 점검 및 상황파악을 통한 시정질문 대비 등 집행부 추진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에서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종운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찬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는 물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작은 생활민원도 의정에 반영해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중구의회, 육상대 부의장 선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1일 제198회 임시회를 열어 제7대 후반기 부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중구의회는 6일 이정수 의장을 선출한데 이어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장에 육상대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장에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사회도시위원회장에 최경식 의원(새누리당, 라선거구)을 각각 선출하였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1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김정환기자

대전시의회,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대전시의회의장 김경호는 11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서구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북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의원(대덕구1선거구, 새누리당),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의원(서구6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박병철 의원(대덕구3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전낙운 의원 "드론 충남 전략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충남도가 드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 2·사진은 1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드론을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드론 시장은 매년 80%씩 성장을 거듭하며 2020년에는 114억 달러(1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중국이 드론 시장의 80% 이상을 석권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 등이 드론 시장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 복잡한 규제에 가로막혀 중국 시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현재 대학가는 발 빠르게 드론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에 대비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 완화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대학가는 드론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복기자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근본적·효과적 대책 수립 촉구 나서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근본적이고 효과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일화로 30년 이상 노후된 서천화력 1·2호기 등을 즉각 폐쇄 조치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제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오래돼 낡은 화력발전소 폐쇄 및 증설 계획을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내 가동 중인 26기 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준공을 앞둔 태안화력 9·10기, 당진 화력 9·10호기, 신보령 화력 1·2호기에 대한 철저한 환경

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별개로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지역자원 시설에 표준 세율을 원자력 발전 수준 이상을 상향 조정토록 건의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서해안 지역에서 1년 중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경 재앙에 준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조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등급 발

암물질"이라며 "대기오염은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심각 상황에서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남에 증설 계획을 허가했다"며 "이는 주민 건강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살인면허 발급과 다를 바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은권 "공직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당부"

다시 한번 공직기강 확실히 확립할 것 당부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중구·사진)이 지난 11일 미래창조과학부 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근래에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면 시·미래창조과학부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솔직히 걱정스럽다"며 다시 한 번 공직기강 확실히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은권 의원은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핵심 운영처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활성화와 지역 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인데, 이러한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집행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며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은권 의원은 R&D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도 이월액 규모가 상당하고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 지적하며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국가재정여건을 위해서라도 편성과정에서 예산계획과 결산이 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어 이은권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지적했 듯 일본의 경우 내진설계를 75에 두고 설계를 하었는데 2011년 8.8의 지진이 원인으로 발생했느냐미로 일어난 재앙이었다. 우리나라도 최대 7.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6.9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지난 7월 5일 저녁 8시 33분 경, 울산일대는 물론이고 부산, 경남 등에서는 진도 5정도도 느끼게 하는 지진이 일어났다. 이는 한반도 지진기록역사 5위이자 울산에서는 최대인 규모 5의 지진이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났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에 대하여 재차 점검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은권 의원은 이날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KBS특취부에 관련한 질의로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임위원회 본회의 임무인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정복기자

"대전만의 대중교통 정책 추진에 노력해 달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문학은 12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정책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심사에 대한 총괄질의를 통해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이 되며 집행부 사업에 대한 성과표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면서 대중통

하수관개 사업의 예산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을 예로 들면서 "철저한 사전검토와 정확한 계획 없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앞으로 결산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연찬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충분히 반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학교급식 지원금 전국 평균수준까지 인상해야"

허태정 유성구청장, 급식관리 기구 설치할 것 강하게 주장



허태정<사진> 대전 유성구청장이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의 불량급식 문제로 확

산되고 있는 지역의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무상급식 지원 단가를 내년부터 전국 평균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관리 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허 청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불량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급식비 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나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며 주장의 배경을 밝혔다.

허 청장은 "이번 학교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원 단가에 있다"며, "대전시 단가는 2,570원

으로 이종 식료품비로 사용되는 금액은 1,865원으로 전국 시도 평균 2,141원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대전시 급식비 현황을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허 청장은 "이런 식료품비는 양질의 급식이 어렵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장 내년부터라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단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의 재원 부담에 있어 교육청의 분담률 현실화와 지자체의 동참도 강조했다.

허 청장은 "현재 대전시 교육청의 학교급식 재원 분담률은 30%로 전국 교육청 평균 분담률 52%에 비교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교육청의 분담률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측면에서 교육청의 분담률을 높여야 하며 교육청의 일시적인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단계적인 부담률 상승을 위

해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한 분담률 조정을 강조했다.

덧붙여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관리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허 청장은 "급식비와 함께 위생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며, "유동과 물류 등 시장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급식의 품질과 위생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급식관리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 청장은 "학교급식은 본질적으로 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이자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대전시와 교육청은 급식비 현실화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부모 등이 함께 논의할 자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양승조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발의

양승조 의원은 12일, '줬다 뺏아 기초연금'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발의했다. 김경호, 김경우, 민병두, 박남춘, 송옥주, 안규백, 오세재, 윤순하, 이언주,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에서 받는 액수만큼 삭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줬다 뺏아'는 기초연금이라는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장애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장애연금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법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노인빈곤을 49.6%에 달하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양승조 의원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39만여명이 기초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각지대만 생겨나는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빈곤문제해결과 노인복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기초연금의 도입 2년을 평가하고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대안을 찾기 위한 '줬다 뺏아'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주최 양승조, 윤순하의원)가 7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특 정 ●

7월 생일자오찬



한현택 동구청장= 13일 오전 12시 동구 신하동 소재 음식점에서 열리는 7월 생일자오찬에 참석.

구민과의 대화



박용갑 동구청장= 13일 오전 10시 및 오후 2시 문화1·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되는 구민과의 대화에 참석.

현장시정실 현장방문



박수범 대덕구청장= 13일 오후 2시 평촌동 2개소에서 열리는 대전광역시 주 관현장시정실 현장방문 참석.

3대 하천 물폭탄... 수해복구 총력

市, 목적교 음악분수대 퇴적물 제거·시설물 보수 거쳐 23일 재개장 예정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2011년 이후 이례적으로 지난 4일 하루에 179.1mm의 물 폭탄이 쏟아져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에 침수 내려온 수초와 쓰레기 등 수해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수해 쓰레기 집하 결과 당초 예상량을 훨씬 웃도는 쓰레기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즐겨 찾는 생태 하천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수해 쓰레기 집하 결과 당초 예상량을 훨씬 웃도는 쓰레기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즐겨 찾는 생태 하천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로 호우경보 및 주의보가 내렸고 대전지역은 4일 갑천 만년교 지점 오후7시10분~오후7시50분 사이 하루에 두 번에 걸쳐 홍수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하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수해 쓰레기 800톤 발생 ▲안전난간 파손 12개소 204경간 ▲통로로 탄성포장 1,527㎡ 훼손 ▲목적교 음악분수대 침수 ▲표지판 40개 전도 등 피해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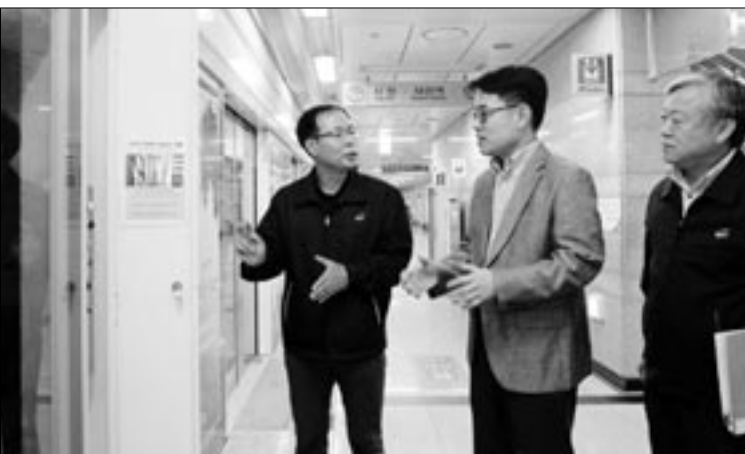
하천관리사업소는 장맛비가 그친 7월 6일부터 인력 500여명을 투입하여 수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설계 및 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하천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목적교 음악분수대는 자갈, 모래 등 퇴적물 제거 후 시설물 보수 등 1700만 원을 투입하여 23일 재개장 할 예정이다.

이영호 기자

도시철도1호선 역사·시설물 안전점검

市, 안전문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요인 해소



장은 시청역에서 역장으로부터 역사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역무원들과의 타임을 통해 근무 여건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열차에 직접 탑승하여 승객들과 만나 이용불편은 없는지 등 도시철도에 관한 다양한 소리를 들었다.

송 부시장은 유성원천역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CCTV 등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역무원들에게 무더운 여름철 승객안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노고에 대해 위로 격려했다.

또, 시와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합동점검을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현장을 찾은 송석두 행정부시

이영호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12일 오전 11시부터 대전 도시철도1호선 역사 및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안전문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요인을 해

소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고위험 시설물과 역사 관리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졌다.

현장을 찾은 송석두 행정부시

이영호 기자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등급' 획득

중구, 전국 213개 지자체 대상 3개 평가항목 실시

중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 6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평가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대전 중구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SA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2014년 평가에서도 SA등급을 받음으로써 3차례에 걸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번 평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15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분야 등 3개 평가항목에

대해 절대평가로 이루어졌으며, 전국 213개 지자체(보궐선거 및 무투표 당선지역 13곳 제외)를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대전 중구는 SA등급을 받은 전국 53개 지자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민선 6기 시군구청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한 하반기 방향성 설정을 위해 진행된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말까지의 단체장 공약이행 상황 분석을 통해 평가됐다.

한편 중구는 선거 시 공약했던 주민과의 약속사업인 5대 분야

20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지난 1분기 말 현재 75.85%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최근 5년간 3차례나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구민과의 약속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SNS 밴드소통 효과 '톡톡'

대덕구, 동네 주민 간 미담사례·근황공유 등 주목

대덕구에서는 SNS 특히 밴드(네이버를 통해 생활블로그인)를 통해 이웃주민들끼리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 밴드에서 1만 6천 400여명이 소통하고 있다. 이는 대덕구 인구 19만 여명의 약 1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SNS 소통을 강조하고 힘써온 결과 주민들 소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도모파손 민원해결, 교통사고 발생지점 개선보수 후 밴드를 통한 피드백 등 실시간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4일 집중호우 시 금강로하스 데크길 파손, 막힌 배수로 및 인도에 쓰러진 나무 신고 등을 신속히 처리한 바 있다.

밴드를 통해 사진을 첨부한 불편사항을 건의하면, 관련부서원들이 밴드에 가입되어 있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바로바로 반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선 기자

위험요소를 신고했던 주민은 "폭우가 쏟아진 후 쓰러져있는 나무를 보고 동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직원이 답글과 함께 얼마 뒤 해결된 사진까지 올려주니 정말 믿음직스러웠다"고 전했다.

박수범 구청장은 "밴드가 생활 불편 민원뿐 아니라 주민들의 근황이나 미담사례 공유 등 예전 동네 대소사를 같이 하던 추억을 되살려 정감이 넘치는 소통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더 많은 주민들의 밴드 참여를 당부했다.

참고로 밴드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밴드 또는 구청 자체행정과(608-6533)를 통해 초대를 받아 가입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제6기 초록우산 대학생 홍보단

무연고 아동 지원 '품다' 캠페인 성료



제6기 초록우산 대학생 홍보단(회장 신유림)이 무연고 아동 지원을 위한 '품다' 캠페인을 성공리에 마쳤다.

지난 3월 14일 발족한 제6기 초록우산 대학생 홍보단은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무연고 아동과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5개 대학 및 각종 축제에서 77회에 걸친 '품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나눔화를 확산하기 위해 플래시몹 이벤트 및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283명의 학생 및 시민들이 무연고아동 지원을 위해 후원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월 300여만 원의 후원금이 정기적으로 지원되어 태어나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진 무연고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유림 회장은 "초록우산 홍보단 활동을 통해 마음이 따뜻한 후원자분들이 많이 만났다"며 "한분씩 인사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 아이들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선 기자

송병배 기자

대청호오백리길 울트라걸기대회 사전접수

市-대전마케팅공사, 건전한 트레킹 문화 확산·녹색생태관광 활성화

대전시(시장 권선택)와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환)는 오는 9월 3일 개최 예정인 대청호오백리길 울트라 걸기대회의 사전 참가자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대회는 대청호오백리길 1구간부터 4구간을 걷는 30km 코스와 금강로하스대청공원을 돌아오는 10km코스, 4가지 의미(소원, 사랑, 우정, 행복)를 생각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테마 코스 등 총 3가지 코스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대전걸기연맹 홈페이지(www.walking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접수기간은 12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걷기를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30km 500명, 10km 1,000명 등 선착순신청자 우선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주요 코스인 대청호오백리길 대전구간(1-4)은 대청호수를 끼고 걸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생태탐방로 코스로 유명하며, 풍성한 역사와 갈대가 어우러진 풍경은 걷는 이들에게 수변경치의 아름다움과 낭만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청호오백리길은 영화 촬영지로도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영화 '여린', '나의결혼약정', '7년의 밤', '드라마 '슬픈 연가' 등이 촬영한 바 있으며 특히 대청호를 주 무대로 촬영한 장동건, 유승룡 주연의 '7년의 밤'은 2017년 개봉할 예정이다.



이영호 기자

이영호 기자



가산엔지니어링, 사회적효행 후원금 1000만 전달 강도독(주) 산엔지니어링 대표(왼쪽)는 지난 11일 대전시노인복지관(관장 유한봉)을 방문, 사회적효행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아너 호(HNO) 소사이어티' 호행자클럽 2호로 이름을 올렸다.

NAVER logo and search bar with text: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검상농공단지 상수도 전용라인 신설 본격 추진

공주시, 사업비 16억 투입 · 강남지역에 공주정수장 연결하는 배수관로 설치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검상농공단지 를 비롯한 웅진동, 봉정동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상수도 배수체계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옥룡정수장 배수구역 내 상수도 급수체계 개선하고 수입저하에 따른 출수불량 현상

을 예방하고자 공주정수장을 연결하는 배수관로 2.6km 설치를 추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웅진동 일원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예미지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의 건축에 따라 향후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옥룡정수장에서만 공급받던 정수장 계통별 공급체계를 옥룡정수장과 공주정수장에서 병행 공급받을 수 있어 검상농공단지, 웅진동, 봉정동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이 직접적인 식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낙목 수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

해 해당지역에 보다 안정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공중위생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주택·건축물 재산세 납부 당부

당진시, 납부기한 8월 1일까지 미납부시 3% 추가가산금

당진시가 지난 7월자로 정기분 재산세 총6만 1천여 건, 214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며, 이 때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분야 1천여 건, 167억 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택 분야 5만 1천여 건, 47억 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금액 대비 6.5%가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선 신축된 주택과 건축물의 증가, 2016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이 꼽힌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체크, 직불카드, 통장으로 간단히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전화(☎080-350-0027)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 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납기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하셔서 채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식약청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식품안전정보원과 '하반기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를 13일부터 14일까지 대전시약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되는 연매출 1억이상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와 매장면적이 300㎡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소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시스템 안내 등이 진행된다.

대전시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평생교육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부여군, 일본어교실·부동산경제 등

부여군(군수 이우우)은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민의 1인1학습체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6년도 하반기 평생교육 정규강좌' 수강생을 오는 18일~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일본어교실, 부동산경제과정(실전투자), 피부미용시양성과정(국가자격과정), 노인건강레크리에이션지도사 2급, 커피바리스타(라떼아트), 드라이플라워 & 데코아트, 한지공예, 생활일러스트, 미니베블로 생활용품만들기 등으로 8월 1일부터 강의가 시작된다.

신청은 관내 거주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부여군 평생학습관(http://edubuyeo.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자치행정과(041-830-2459)로 문의 및 위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근거리 교육 장소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 부여에 걸맞은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학습여건을 조성하느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여=이정복기자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최진구 대전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국세행정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위한 의견교환과 소통 계기 마련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양찬희)는 12일 리베라호텔 유성 피어니홀에서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이 쉽게 알 수 있는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최진구 대전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인들의 노력과 우리 지역의 위상에 걸맞게

세정 측면에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인들은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중소기업 경영에 대해 ▲세종세무서 조기 신설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간소화 ▲주유운반 관련 세정지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한도 확대 ▲자동차 보험수리시 자기부담

금 관련 감세 ▲사업용 계좌 신설시 세무서 신고방식 개선 ▲홈택스 납세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선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적용대상 확대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업무용용차 과세 합리화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안내 책자 배부 등을 건의했다.

전원식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은 "중소기업도 바른 기업이 정신을 바탕으로 성실한 납세종조성과 우리 경제 제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아산시어린이집연합회와 MOU 체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운식)과 아산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구)는 11일, 어린이들의 생태교육 기회 제공과 공회 확대를 통한 공동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 정보 및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아산시 생태공원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시 이해도 향상을 위한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운식 이사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생태 교육과 견학은 감수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발전 방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성구 연합회장은 "관내에 활용도 높은 아산시 생태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예비 귀농귀촌인 맞춤형교육 내달 22일부터 시작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전국 귀농귀촌 1번지로의 명성에 걸맞게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예비귀농귀촌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예비 귀농귀촌인 맞춤형교육은 서울 송파구 소재 ㈜MBC귀농아카데미에서 5일간의 이론교육과 청양군 소재 집합산후유암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3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초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영농지식 등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 귀농인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영농현장체험학습은 블루베리, 비가림포도, 시설토마토 등의 농장과 부자농촌지원센터 및 구기자시협장, 양봉+6차산업화 선도농가 등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제17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 귀농귀촌 홍보관을 관람하고 청양군 귀농귀촌협의회 주관으로 귀농 선배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 귀농 성공스토리를 들려볼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귀농귀촌 토크콘서트 분기별 개최, 지역맞춤형 현장투어, 펜트·펜터 사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5000만원 소득 올리기 프로젝트를 개발해 성공적인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청양군귀농귀촌지원센터(040-4740-3) 및 ㈜MBC아카데미(2240-3888)로 문의하거나, 청양군 귀농귀촌홈페이지(returns.chung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군 정기분 재산세 51억 600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6억 5200만원 증가, 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태안군이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2만 82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89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51억 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5200만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은 건축물, 주택(대지 포함), 선박(20톤 미만 어선 제외), 항공기 등이며 납세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다.

재산세 변동은 개별주택가격 2.7% 상승과 건축물 신축가격 상승 및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 추가 등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는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제 대상이 지난해 2천에서 올해 20천으로 확대된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은행 창구가 붐비는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환기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간담회 열려

(주)이렉스넷 등 신규 획득 기업 인증서 수여식도 병행

대전·충남·세종지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들과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선, 이하 대전충남중기청)의 간담회가 12일 개최됐다.

대전충남중기청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업의 규제에도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참여했는데, 이 중 4개 기업은 올해 6월에 신규 인증을 취득한 기업으로 이들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도 병행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6월에 신규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인증받은 대전·충남·세종지역

기업은 9개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인증된 기업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 및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에 있어 각종 우대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전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은 1만 7530개 기업으로, 대전·충남·세종지역은 1266개 기업(대전-492, 충남-721, 세종-53)이 인증을 취득했다.

대전충남중기청 관계자는 "이노비즈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견고한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대전투데이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전투데이 후원회 일동

한밭대학교, 외국인 학생들 보다 쉽게 한국어 배울 수 있도록 '세종 훈민정음 한국어 초급A' 발간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은 외국인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연수교재 '세종 훈민정음 한국어 초급A'를 발간했다.

한밭대 국제교류원(원장 강희정)은 '세종 훈민정음 한국어 초급A' 교재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연수가 가능하도록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며, 한국어 연수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 국가의 한국어 유학생들이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매대학 및 한국어 연수교재 보급이 필요한 해외 교육기관에서도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밭대의 국제교류 활

성과와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교재는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삽화와 녹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을 위한 실전 연습이 가능하도록 문법과 표현, 말하기·듣기, 읽기·쓰기 등으로 구성했다.

교재기획·편찬위원회 위원장인 강희정 국제교류원장은 "이번 교재 발간으로 외국인 연수생 및 강사진들이 수월하게 한국어를 교수·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및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각국의 현지에서도 한국어 습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자살고위험군 1대 1일 멘토링사업

공주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자살예방 멘토링 간담회 개최



공주시(시장 오시택)는 지난 11일 공주시보건소에서 자살예방 활동 자원봉사자(멘토)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주시 자살률 감소를 위한 멘토링사업 멘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멘토 간의 정보공유와 활동상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공주시 자살예방 멘토링사업은 2014년부터 자살시도자, 우울

증 환자 및 독거노인 등 3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368명으로 확대해 자살고위험군과 1대 1로 결연을 맺고 가정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자살예방 활동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신현정 보건소장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이며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시, 7월분 재산세 1247억원 부과

8월 1일까지 고지서 없이 CD/ATM기 납부 가능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7월 정 기본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247억 원을 부과했다.

이중 재산세는 879억 원, 지역 지원시설세는 273억 원, 지방교육세는 95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85억 원, 건축물분이 662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대비 31억 6000만 원(2.6%)이 증가한 것으로 관저5지구, 죽동지구, 도안지구 등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신축(6천여 호, 27억 원)에 따른 증가액과 건물과표 조정 및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67억 원(전년비 4.8% ↑)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동구가 148억 원(전년비 2.8% ↑), 대덕구가 152억 원(전년비 2.2% ↑), 서구가 406억 원(전년비 1.8% ↑), 중구가 174억 원(전년비 0.1% ↑)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별장)주택으로 1000여 만 원,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 대전북합터미널로 4억 59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u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장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홈쇼핑, 제품 기능·가격 관련 허위·과장 민원 많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 심의동향>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중)는 올해 상반기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시청자 민원과 심의 동향을 분석한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 심의동향>을 발표했다.

<홈쇼핑방송 심의동향>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에 홈쇼핑방송과 관련해 방송심의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66건이었으며, 민원신청 사유별로는 ▲제품의 기능·효능·안전 관련 허위·과장 등에 대해 15건, ▲가격 관련 허위·과장 등에 대해 10건 등 허위·과장 등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66.7%인 44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식품·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관련 민원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홈쇼핑방송사별(데이터홈쇼핑 제외)로는 ▲CJ오쇼핑에 대한 민원

이 전체의 37.9%인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16년 상반기 동안 방송심의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홈쇼핑방송사에 제재조치 등을 결정된 건수는 총 50건(제재조치 24건, 행정지도 26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제재조치는 16건이 증가했고, 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는 7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이 총 13건(제재조치 6건, 행정지도 7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NS홈쇼핑(제재조치 7건, 행정지도 2건)과 ▲현대홈쇼핑(제재조치 5건, 행정지도 4건)은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였으며, ▲홈쇼

핑의 <한국조폐공사 오트 골드바>, <쿠쿠정수기>, ▲C오쇼핑의 <쿠쿠정수기>, ▲NS홈쇼핑의 <엠보니파 모리스 켈링 퍼 패딩 코트> 등 총 4건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방송심의위의 제재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방가전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화장품)과 ▲식품·건강기능식품에서도 각각 12건과 10건의 심의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또한, 제재사유별로는 ▲과장 등 허위 표현이 26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며, ▲허위 표현이 25%인 17건, ▲부적절한 최상급이 12%인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방송심의위는 "시중가 보다 훨

씬 비싼 가격에 판매된 골드바 판매방송의 사례와 같이, 홈쇼핑방송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시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정수기 필터가 미네랄을 용출시킨다는 허위방송이나 상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용 피부관리를 위해 화장품처럼 바르도록 하는 오인 내용 등 신제품·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지속하여,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실시공 예방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7월 1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대전국토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건설,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이다.

이날 교육은 대전국토청 건설관

리실에서 품질시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35년간 담당하고 있는 김창범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건설공사 품질확보 및 건설시공 유도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및 절차, 계획서의 작성 목적 및 주요내용 등 일반사항을 소개한다.

또 도로건설공사의 주요 공정별

품질관리 중점사항과 품질시험 종류 및 목적, 관리기준 등 전문적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흙 쌓기 공정의 재료별 품질기준 및 다짐도 확인을 위한 시험종류 및 방법, 레미콘·아스콘의 우수시공방법, 주요점검내용 등 품질확보를 위한 유의사항을 집중 교육한다.

김태성기자

아산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등급)'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상 실시... 3년 연속 최고등급

아산시는 3년 연속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SA)평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 자료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만점) ▲2015년 목표달성 분야(100점만점) ▲주민소통 분야(100점만점) ▲웹소통 분야(100점만점) ▲인식도(Pass/Fail) 등 5개 분야를 절대평가하고, 5단계(SA-A-B-C-D)로 등급을 매긴 것이다.

아산시는 주민 소통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확대 등의 공약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시는 금년 공약이행 최우수(SA) 지자체 선정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되었으며 이는 충남에서 유일하다.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는 셈이다.

아산시는 그동안 성실한 공약이행 위해 분기별 자체점검 및 평가를 실시했으며, 특히 일반 주민들이 직접 시장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민배심원제'를 민선6기가 시작되는 2014년도부터 도입·운영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 시민들에게 공개해 왔다.

2016년 6월 말 현재 5개 분야 82개의 공약사항 중 31건은 완료(이행률 37.8%), 5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공약이행 노력이 꾸준히 우수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향후 공약이행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비롯해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지속운영 등 책임행정 구현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 우수 기관 선정

한국매니페스토, 청양군 '우수' 등급으로 평가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충남도내 군부 최고등급(A)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7곳으로 충남에서는 청양군을 포함 4곳이다.

이와 반대로 공약이행정보 공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는 6곳이며, 현재의 공약이행현황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D등급을 받은 지자체도 18곳이나 됐다.

이번 평가는 시민사회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4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 정보 자료를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이행도 등 5대 평가지표로 구분해 1, 2차 평가와 철저한 자료 검증 등을 통해 진행했다.

청양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는 6곳이며, 현재의 공약이행현황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D등급을 받은 지자체도 18곳이나 됐다.

청양=정성범기자



2016년도 8월 시행 (27~29회) 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 및 실기시험 원서 접수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대전지사(지사장 김종관)는 8월(27~29회)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 및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t.q-net.or.kr) - 공지사항-시행계획 공지(필기, 실기) 참조

시험종목은 한식·양식·일식·중식조리, 미용사(일반·피부), 제과, 제빵, 정보처리, 정보기

기운용, 굴삭기·지게차운전 등 12개 종목이며, 필기 및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인터넷(t.q-net.or.kr)으로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티큐넷(http://t.q-net.or.kr)이나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홈페이지(http://www.ktiq.or.kr) 대전지사 전화(042-580-9141~35)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송병배기자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과학기술 전공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선정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원장 염명배 교수)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공모사업인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미래부와 한국과총은 7월 8일, '2016년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사업책임자 : 행정학과 이찬구 교수)에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과학기술전공을 선정, 발표했다.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걸친 체계적 교육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이다.

최장 7년간 지원되는 이 사업에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은 1년차(2016년)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 받고, 향후 평가를 통해 최장 6년간 총 1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정복기자

아산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3년 차 맞아

읍면동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아산시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3년 차를 맞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도로명주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읍면동별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배부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읍면동별 경계와 건물 및 도로 등을 표시해 각 읍면동별 현황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시민의 방문이 많은 주요관광서, 생활 편의시설 등의 건물 정보와 시가지의 건물번호까지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아산시민은 물론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동안 아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위치 찾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리량주기자



한울타리 봉사회, 대덕구 일천원 이웃사랑회에 정기 후원 계몽버스 한울타리 봉사회(회장 유재홍)는 지난 11일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를 방문하여 대덕구 일천원 이웃사랑회(회장 김서환)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구, 흡사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중구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쪽방 생활주민 및 노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천교육지원청 유·초·중등 교장 회의 지난 12일 대회의실(3층)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33명 등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비봉면 전담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청양군비봉면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난 11일 다목적회관에서 이석화 청양군수를 비롯한 주요내빈과 각 읍·면 남녀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공주시, 교통사고 예방위한 대형버스 등 음주운전 불시 점검 12일 공주북한버스터미널에서 대형버스 및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검지 및 안전벨트 착용 불시점검이 나섰다.



세종소방서 본격 운영 돌입 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가 12일 이춘희 세종시장, 지역단체장,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서식을 가졌다.



천안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학교급식 특별점검 실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연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및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간부공무원 학교급식위생·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산 롯데마트, 파견 근로자 폭행 사건 모르쇠 일관

사실상 파견근로자의 관리에 대한 취약함 그대로 노출



지난 3일 롯데마트 서산 영업장에서 파견 근로자 2명이 주먹질이 오가는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롯데마트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후지나 물티슈를 생산하는 A사 직원 D씨(50대 후반)와 삼푸를 생산하는 L사 직원 K씨(40대 초반)가 맞다툼을 벌이다, 폭행 사건으로 번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50대인 A씨의 손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합의를 돌출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롯데마트 관계자는 증언했다. 이들은 파견 근무자들인데 롯데마트 본사와 계약체결로 현장에서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손등의 뼈가 부러진 B씨가, K씨를 폭행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롯데마트측은 사고 경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서산점 관계자들은 합의점을 찾아주기 보다는 "롯데마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파견 근로자의 관리에 대한 취약함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폭행사고가 발생하지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서산점에서는 본사에 보

고조차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된 11일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숨겨진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롯데마트 본사 홍보부서 관계자 이에 대해 "파견근로자 개인들 간의 일이라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기자가 당사자들 본사에 알아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파견 근무자라 해도 롯데마트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으로 볼때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롯데마트의 사후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산=김정환기자

서구, 본격적 여름철 식중독 예방 '총력'

서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없는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구에 따르면 식중독 대책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생선회 취급업소 등 468개 소 위생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전송(SMS)을 평일과 주말까지 확대하여 전송할 계획이다. 식중독지수는 기온과 습도의 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수치화한 지수로 온·습도와 장마 사이 고온 다습한 날씨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오는 7월 20일까지 유원지 및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과 닭·오리 등 가금류 취급업소 식중독예방 컨설팅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수술 의사 변경때 반드시 환자 동의 받아야"

공정거래위, 수술·시술 등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병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도록 했다.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도 사유와 수술 시행 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또한,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했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 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유병(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호 가전으로 최대한 많이 교체해 드려도,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영도 노후부...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동 25-1 대전투데이 1호

www.daejeontoday.com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대상 실시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근)는 12일, 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 1회로 가능했지만 개정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 1회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했다. 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

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종업원들의 안전교육과 전반적인 소방시설 등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안전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소방안전협회 사이버 교육 센터(www.cbarksa.or.kr)로 접속해 로그인 후 교육을 수료하고,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전통시장 화재안내요원' 지정

청양소방서, 자체 시책... 시장 점포주를 화재 안내요원 지정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자체 시책으로 시장 점포주를 화재 안내요원으로 지정, 화재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률을 앞당기기로 했다. 12일 청양소방서에 따르면, 시장 진입로 인근 점포주 4명에 대해 시장 상인회를 찾아 이들을 안

내 유도요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시장화재 시 진입로의 정확한 위치안내와 소방도로 상 적치물 제거를 유도하여 소방차가 보다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청양=정성범기자

금산경찰서,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조직범죄에 준한 강력대응 등 선제적 형사활동 강화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욱)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미끼상품으로 게재해 피해자에게 구매를 강요하는 등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는 여

유기철을 맞아 끊이지 않는 중고차 매매 관련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조직범죄에 준한 강력대응 등 선제적 형사활동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13일까지 100일간 전담수사팀을 꾸려 입

적·종합적 단속을 통해 중고차 매매과정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장소·관련단체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고 신변보호제도도 적극 활용해 신고자 안전 및 보호에도 최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산=송광우기자

공주소방서, 관내 공장·창고 시설 소방특별조사

오는 29일 까지 관내 공장·창고대상을 안전관리 여부 확인 등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공장·창고시설 64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화재발생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장·창고시설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대형화재 예방과 맞춤형 안전컨설팅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실시된다. 주요확인사항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자체

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 이행 사항 ▲화재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기연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비상구 등 피난·방화설비 적정 설치 여부,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소방시설 불량사항 및 불법 건축물 발견 시 조치명령서 발부 및 관련기

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주현 화재대책과장은 "공장·창고 화재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이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상태를 최우선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명령 발부 및 과태료 부과, 불법건축물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관계자들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쌀과자의 미국 수출 성공사례 발표

aT, 윈스톱 수출지원사업 활용... 9백만 불 상당 성과



가공공정이 적어 미국 현지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착안해 뉴욕 aT센터에서는 제품 포장디자인을 현지시장에 맞게 개선하는 컨설팅을 지원했고 지난 5월, [aT 스마트 스튜디오]에서는 고품질 사진과 영상 홍보물을 제작한 후 미국 유통업체와 벤더에 적극 홍보했다. [aT 스마트 스튜디오]는 농식품 1단계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농가와 식품업체의 홍보지원을 위해 제품사진 제작,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마케

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에는 현지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포장에 개선된 쌀과자 첫 물량이 수출김에 올랐으며 KeHE 벤더박람회, 뉴욕식 품박람회에도 출품해 Shoprite, Shaw's market 등과 9백만 불이 넘는 계약상당이 이루어졌다. 송병배기자

직장인90% “출산 따른 육아휴직제도 사용 희망”

<사람인>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 쓰고 싶어 하는 비율 매우 높아

부부가 자녀 양육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육아휴직을 원하는 남성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1.57만명을 대상으로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사용 희망 여부’를 설문한 결과, 91.4%가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94.8%, 남성의 88.9%가 육아휴직 사용을 원한다고 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이유는 ‘부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기 위해서’(46.8%,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고,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46.7%)가 바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퇴사가 불가능해서’(32.7%), ‘가족 중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27.9%), ‘임신, 출산에 따른 휴양증이 커서’(27.9%), ‘모모를 고용할 형편이 안돼서’(18.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직장인(584명) 중 7.7%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실제 사용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22.1%, 남성은 2.6%에 그쳤다.

또한, 이들 중 26.7%는 휴직 후 근무했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회사로부터 퇴직을 종용받아서’(50%, 복수응답), ‘아근이 많아 육아와 병행이 어려워’(33.3%), ‘차별

과 따돌림을 받을 것 같아서’(16.7%)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전체 응답자 중 무려 90.3%가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57.1%,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42.1%),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 공백이 커서’(38.6%),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38.4%),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34.9%), ‘다들 쓰지 않는 분위기여서’(29.3%),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28.4%) 등이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해 보장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65.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연차, 조퇴 등의 자유로운 사용’(50.5%), ‘정시 퇴근’(49%), ‘출산 장려금/육아 수당’(41.7%), ‘유연근무제’(34.3%), ‘자녀 어린이집 운영’(23.2%) 등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지난해 정부 부처 남자 공무원의 15.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기업에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부부가 분담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과 함께, 기업들도 여성은 물론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충남도교육청, 도내 국·공·사립유치원 505개원 대상 전수조사

우레탄 유해성 조사결과 100% ‘이상무’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내 국·공·사립유치원 505개원을 대상으로 놀이시설 우레탄(충격흡수표면재) 유해성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밝혔다.

도내 유치원 놀이시설 바닥재의 경우, 262개원은 모래 바닥, 243개원은 탄성 및 고무소재(충격흡수표면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놀이터 바닥재가 모래인 유치원은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래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탄성 및 고무소재 놀이터 바닥도 2년에 1회 놀이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유해성검속 물집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치원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어린이 놀이터 등 활동 공간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유아의 건강 문제가 제기되고, 초중고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연이어 나오자,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긴급하게 유치원에 대해서도 우레탄 유해성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5일 교육부의 전국 유치원 우레탄 유해성 전수조사 시행 발표보다 한 달 앞선 것이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진로힐링 특강 실시 7월 11일 오후 2시 강경중 강당에서 강경중과 강경여중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자유학기 스토리가 있는 진로힐링 특강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아산고, 꿈·끼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



아산고등학교(교장 강경산)는 지난 8일, 40명의 학생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국영상대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신만의 꿈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2016 대학연계 교육기부 진로체험’이라는 이름으로 개

설한 프로그램으로 충남에 위치한 대학과 중, 고등학교가 매칭하여 운영되는 대학 학과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아산고등학교는 청운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건양대학교, 한국폴리텍대 아산캠퍼스의 총 4개 대학, 8개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두 번째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 남양초,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남양초등학교(교장 김영화)는 지난 11일 유치원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 지키기로 꼭! 꼭! 약속해요!’라는 주제로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화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골목길, 주차장, 자동차 주변 등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교통안전수칙 및 보행 시 유의사항, 안전벨트의 중요

성, 통학버스 안전사각지대 등 평소 안전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는 강의와 동영상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진행되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최고의 대처방법은 예방이며 평상 시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교육 후에는 설치된 모형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직접 건너보고 교통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았다. 청양=정상범기자

학생평가 방법 개선 위한 연구회 선정

대전시교육청, 혁신적 솔루션인 자기성장평가의 생생한 연구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생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인 자기성장평가의 생생한 연구를 위해 학교 현장의 역량있는 교사들로 구성된 학생평가연구회 2팀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월 6일 한국교육평가학회와 공동으로 자기성장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기성장평가의 가치를 진단하고 일반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평가연구회를 2팀 선정하여 자기성장평가의 수업 적용과 그 효과, 개선점 등을 연구하도록 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자기성장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핵심 역량 중심의 평가를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평가 방식은 수업과

연계되어 수업 중에 평가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 평가를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돕고 학생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학교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은 “학생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전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기성장평가는 학습지향적이며 과정중심으로 수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생의 성장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연구 역량이 뛰어난 선생님들이 중심이 된 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자기성장평가의 수업 적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당진교육지원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

미래의 공무원을 꿈꾸는 서아고등학교 학생 25명 대상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재진)은 지난 12일 미래의 공무원을 꿈꾸는 서아고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웨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보고 교육과, 행정과에서 부서별로 1:1 멘토를 맺어 인터뷰 하고, 인터뷰 이외에도 간단한 업무 체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 정책이 수립되고 결정되는 과정 등의 이해를 통해 공무원의 일상과 직업적 특성 등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당진=최근수기자

학생들은 이날 실시한 체험 및 소감을 발표한 후 이수증을 받고 간담회를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교육 행정을 꿈꾸며 교육행정 분야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 관련된 경험을 하고 싶어 교육지원청에 직업체험을 지원했는데 멘토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해주어,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굿네이버스 충청본부·신흥초병설유치원, 모금 전달식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충청본부(본부장 고승곤)와 대전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장 민경량)은 지난 11일 신흥초병설유치원에서 나눔 캠페인을 통해 얻어낸 수익금 19만5000원을 모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공청회 개최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기 위해 가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조치원읍 중학교(조치원여중, 조치원여중) 이전 재배치와 관련,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조치원대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월 22일부터 지난 7월 1일까지 조치원중학교 2개 중학교와 학구내 해당 초등학교 8교 등 총 10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전 재배치 설명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지역별로 입장과 견해가 달라 이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직장인 등의 시간적 편의를 고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피해 오는 25일 저녁 7시에 열린다. 이날

시교육청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중학교 이전 재배치는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읍지역 학생의 동지역 전출(유출) 방지 등을 위해 조치원중과 조치원여중을 통합하여 1교인 남녀 공학학교를 만들고 1교를 서부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학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서(홈페이지 광고)를 이메일(ksh6140@korea.kr)이나 우편, 팩스(044-320-3299)를 통해 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21)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이정복기자



공주교육지원청, 2016년 생명사랑·심롱스쿨 무빙 콘서트 실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은 지난 12일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컨벤션홀에서 관내 중, 고 학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인 “2016 심롱스쿨 무빙 콘서트”를 실시했다.

홍성교육지원청, 내포지역 신설유치원 원명 선정

2017학년도 3월 개원예정 단설유치원명은 “가람유치원”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옥심)은 2017년 3월 내포신도시에 13학급(특수 1학급 포함) 규모로 개원 예정인 공립 단설유치원의 원명을 “가람유치원”으로 선정하고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충남도의원, 홍성군의원, 교육관계자, 학부모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성교육가족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응모작 58건에 대하여 2차례에 걸친 선정절차 후 최종적으로 “가람유치원”을 원명으로 선정하였다.

가람유치원 원명의 선정배경은 가정편을 따라 흐르는 지역 이름이 가람마을이며, 강(가람)은 강의 순우리말처럼 영원히 흐르는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아

이를 육성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정된 원명은 홍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전화 630-5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옥심 교육장(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원명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성교육가족에게 감사드리며, 내포신도시로 이주하여 홍성교육의 유아교육 발전을 기대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가람유치원 설립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홍성=최진우기자

● 특 정 ●

일본 농정개혁 관련 토론회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3일 오전 10시에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리는 일본 농정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

노인지도자읍·면 순회교육



김석환 홍성군수는 13일 오전 10시 금마면 회의실에서 열리는 노인지도자읍·면 순회교육 참석.

민주시민교육연수 개강식



최경선 세종시교육감은 13일 오후 2시, 세종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민주시민교육연수 개강식에 참석.

예산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예산군은 지난 11일 오후 22일까지 신례원 3리 마을회관에서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군 정보화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힘든 주민들의 정보화 욕구와 정보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설명 등과 같은 어려운 내용을 줄이고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마을회관에 모인 10여명의 주민들은 전문강사로부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스마트폰 기본 기능과 블로그 등 SNS활용법 등을 배웠다.

군은 다음달 8일부터 관자리 마을회관을 찾아 정보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민기름이 용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이상화기자

내포서 프리미엄 콘서트 열린다

7월 마지막 수요일 밤, 내포신도시에서 유명 아티스트들의 시원한 무대가 펼쳐진다.

충남도는 '인기가수와 함께 하는 7월 문화가 있는 날'인 오후 7시 30분 내포신도시에서 '프리미엄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는 김중서와 손승연, 걸그룹 퀸비즈가 출연, 한여름 밤 감동의 무대를 펼친다.

한국 특의 삶이 있는 전설과도 같은 가수 김중서는 밴드와 함께 무대에 올라 자신의 히트곡 '겨울비'와 '플라스틱 신드롬', '아름다운 구수' 등으로 독보적이고 강렬하면서도 감미로운 음색의 진수를 선보인다.

또 지난 2012년 케이블방송 음악경연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가수로 데뷔한 손승연은 매력적이고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5인조 걸그룹 퀸비즈는 화려한 무대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콘서트 관람료는 R석 2만 원, S석 1만 5000원, A석 1만 원이며, 예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www.asiamunhwa.com) 또는 전화(1644-9289)를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단 하루, 최고의 아티스트를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더 풍성하고 알찬 공연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착수

충남도, 오는 12월 27일까지 180일간 설문조사·심층면접 병행 실시

충남도가 인권적 관점의 이주노동자 관련 도정 추진을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12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분위원회 여성정책개발원,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지역

의 실태에 맞는 이주노동자 도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시기는 지난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180일간이며, 조사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미등록자 포함) 및 사업장 관계자, 관련시설 종사자와 전문가 등이다.

조사 방식은 조사대상별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와 함께 결과분석을 통한 전문가, 종사자, 이주노동자 그룹 등 그룹별 심층면접을 병행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자 전문가(3명), 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진(1명), 도 관련 실과장(3명)이 참여하는 지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분위원회는 앞으로 진행될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보고서를 완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권실태조사에 도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도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홍성축협-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 사업설명회

"유익한정보 습득·경쟁력 강화"

홍성축협(조합장 이대영)을 주관으로 12일 홍성문화회관에서 축산농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축협-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홍성축협은 홍성한우브랜드 경영체로 921농가 2만9207여 두를 참여하기로 운영 중에 있으며,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홍성축협에서 홍성한우 브랜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HACCP·무항생제 인증 지원, 출하 하자 유발생 농가 지원, 홍성한우고급육 출하 운송장려금 지원 등 홍성축협과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의 사업설명회 첫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여 공급량이 감소해 전년 대비 한우 가격이

상승세에 있으나, FTA 등 개방화로 수입육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축산품질경영기원에서는 최고 등급 판정 기준 보완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한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최장본 교수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뒤이어 무허가 축사 개선요령에 대한 홍성군청 축산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번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홍성한우 농가가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였기를 바라며, 홍성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홍성=최진우기자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공사순항

"주변도시 접근성 대폭 향상기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청주국제공항 간 광역간선망의 확충을 위해 공사 중인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가 원활히 건설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총사업비 1,345억원을 투입하는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는 행정도시-오송역 연결도로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지방도 508호선) 사이에 양방향 2차선 도로 4.72km를 신설해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8년말 개통할 예정이다.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는 2015년 1월 착공해, 작년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대부분

완료하고, 지하차도 및 토공 작업도 공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

최근에는 공사 주요공정인 병천천교 세로보(거더) 64본 중 32본을 안전하게 거치 하였으며, 나머지 32본 거치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고성진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행복도시와 청주공항의 연결성과 청주 등 주변도시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준공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차질없이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정복기자

장마대비 저수지 안전점검

세종시, 37개소 대상... 예초작업도 병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장마철을 대비하여 12일까지 농업용 저수지 37개소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예초작업을 마쳤다.

세종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확인과 점검정비를 실시했다. 아울러, 저수지 주변 버려진 각종 쓰레기 제거와 제방 및 여방수로 등 48000㎡에 대한 풀베

기 작업도 병행했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시급한 지구는 보수보강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강성규 지역개발과장은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2016 세종교육 콘텐츠 공모전

세종시교육청이 세종 교육가족 및 시민, 전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찾는다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가 꿈꾸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2016 세종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을 비롯 총 2명을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상은 물론 대상 150만원, 으뜸상 100만원 등 총 1,000만원

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이고, 결과는 9월 5일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je.go.kr)를 통해 발표 예정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스터는 방문이나 우편접수로 제출 가능하고, 영상, 웹툰-포토툰, 장편 분야는 공모전 게시판을 신청서와 작품 업로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세종=이정복기자

올해 수능시험 관리 운영 계획 수립

충남도교육청, 11월 17일 실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11월 17일에 실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세부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도내 고3 재학생 및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수험생들이 시험을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2017 수능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수능 시험은 한국어 영역이 필수로, 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기형/나형을 선택하는 시험으로 실시된다. 출제는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적용되며, 특히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에서 전년도 교재와 강의 공부를 보완하는 등의 수능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표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은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나 기타 학력 인정자는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충남지역 시험지구교육청은 모두 7군데로 ▶천안은 천안교육지원청 ▶공주·부여는 공주교육지원청 ▶보령·서천·청양은 보령교육지원청 ▶서산·태안·당진은 서산교육지원청 ▶논산·계룡·금산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홍성·예산은 홍성교육지원청 ▶아산은 아산교육지원청이다.

성적표지표는 12월 7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희망자에 한해 전자메일로도 성적표지표를 발송한다.

충남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 수능업무 담당자 연수와 고등학교 입부 담당자 회의, 원서접수 시스템 활용법 연수를 계획하는 등 금년도 수능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정책과 이신훈 과장은 "올해 수능이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에서도 무결점 수능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모든 수험생이 착실히 준비해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최진우기자

예산군 주택·건축물 재산세 51억원 부과

지난해 보다 9.8% 증가... 다음달 1일까지 납부

예산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주택외)의 사무실,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해 2016년도 재산세 5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올해 군 세입 목표액의 1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억여원 약 9.8% 증가했으며 군은 증가요인을 건물의 신축과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 보다 2.8%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반으로 나눠 부과됐으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의 나머지 본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납부와 자동이체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스마트워킹스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금융결제원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법정기한인 7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조성과 개선사업에 투자되며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이상화기자

긴급누수저감사업으로 우수율 11.8% 향상

홍성군, 월간약 7천만원... 수돗물 15만7000톤 절약성과

홍성군은 2015년 12월 9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긴급누수저감사업으로 2015년말 63.8%에서 75.6%로 우수율이 11.8%를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수율이란 보령댐에서 산수돗물 중 군민에게 요금을 받고 공급한 수돗물의 비율을 말한다.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월대비 5월말 기준 월간약 7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157천톤의 수돗물을 절약한 것으로 앞으로 이상기후 등으로 야기되는 가뭄 대처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우수율 향상을 위하여 배수지의 유입·유출 계량기 16개소, 누수탐사 및 복구 300여건, 감압밸브 10개소, 유량조정밸브 5개

소를 완료했다.

또한 노후관로 10여km를 정비하였으며, 노후관로 정비는 누수가 심한 광천을 원천,삼봉일대의 구역을 잡아 전체관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

다.

군은 누수 보수 및 소규모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와 함께 우수율 향상을 위한 연차적 사업추진을 통해 누수를 대폭 줄이고, 깨끗한 수도로써 주민들의 공평할 계획이다.

홍성=최진우기자

세종시 시민참여 무궁화동산 사업 공모

마을주변 방치된 유휴지 등 대상 21일까지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참여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마을주변 방치된 유휴지, 행정력이 미치지 어려운 녹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웃들과 함께 무궁화와 아름다운 꽃이

피는 마을 동산을 가꾸는 것으로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1일까지 '시민참여 무궁화동산' 조성 신청서를 읍·면·동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 대상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세종시는 무궁화동산의 식재설계 자문을 읍·면·동은 무궁화나무 식재와 관리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단체는 무궁화동산 설계 참여, 식재,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은 "시민참여 무궁화동산 조성을 통해 도시 곳곳에 무궁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공간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등정

내일로 홍보단 발대식



북기왕 아산시장= 13일 오후 2시 용산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내일로 홍보단 발대식에 참석.

제5차 본회의



이종운 당진시의장= 13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

역량강화교육



한상기 태안군수= 13일 오후 2시 태안을 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열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교육에 참석.

최종보고회



이석화 청양군수= 13일 오후 3시 30분 군청 상강실에서 열리는 청양 독립운동사 발간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다.

음악경연대회



심재진 당진교육장= 13일 오전 9시 30분 문예의전당에서 열리는 당진시 중·고등학교 음악경연대회에 참석.



온양3동 소통게시판설치 운영

온양3동 (동장 전병관은 주민에게 친근한 봉사소로 다가가기 위해 주민센터 입구에 소통게시판을 설치했다. 온양3동은 주민과의 소통을 기본 근무수칙으로 정하고 타동과는 달리 두달마다 기관단체협의회를 개최하여 동네서 일어나는 소식을 전함은 물론 이웃을 통해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직원들은 매일 둘째, 넷째 주에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서로간 업무연찬을 함으로써 직원의 공백시에 민원인에게 업무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주민센터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금급한 점이 있으면 사무실에 들어가 물어봤는데, 주민센터 입구에 게시판이 있어 지역 일자리공동체사업 추가 모집한다 소식등을 접하게 되니 저도 행정시민이 된 느낌이다"고 말했다. 전병관 온양3동장은 "맞춤형복지사업이 신설되고 주민센터 리모델링 후에 주민에게 시정소식 등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던 중 소통게시판을 생각해 보았다"며 앞으로 소통게시판을 계기로 동민과 하나되는 동정을 이룰 것이라며, 동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하나하나 고쳐나가 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스마트 보고체계 전면 '확대'

당진시, 종이문서 보고 없애고 모든 보고는 스마트 패드로

당진시는 앞으로 종이로 만든 보고서류를 줄이는 대신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 보고체계를 전면 확대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현재 매월 개최되는 통합간부회의나 격주로 개최되는 월요간부회의 시 스마트패드를 활용해 보고해 왔으나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나 단순한 보고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 출력물의 활용 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종이서류에 의한 보고는 인쇄물 출력 후 수정사항이 발견되면 제작한 내용을 다시 인쇄해야하는 불편이 있지만 스마트 패드를 활용하면 패드에서 간단히 보고 자료를 수정할 수 있어 시간적으로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한글 문서 외에도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고자료 인쇄에 쓰이는

종이와 잉크, 토너 등은 대표적인 경성적 소모품이기 때문에 인쇄물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경성적 경비 지출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시는 간단한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전자시스템인 온나라를 활용해 전자 메모보고를 활성화하고 부득이 대면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종이 출력물 대신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수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종이보고 폐지 외에도 경성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참전유공자 가족 처우개선 앞장

참전유공자등 지원조례 개정·미망인에게도 복지수당 지급키로

태안군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내달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7월 15일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유

공자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유공자가 고령으로 사망하는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자격이 승계돼 보호명예수당을 받아왔으나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해당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그동안 보호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전쟁에 참여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 및 가족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원조례를 개정,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내달부터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다. 복지수당 신청은 7월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미망인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참전기록 병적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첫 지급일은 내달 25일이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태안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국민을 대표해 싸운 참전유공자의 명예 회복과 그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서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목욕·이용·미용권 방문 배부

온양2동, 7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관내 11개 경로당 방문

온양2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관내 11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2016년 하반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전달한다. 온양2동은 이미용권 배부와 함께 관내 경로당 장마철 시설점검을 실시하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 어르신들이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담당자팀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날 목욕권을 받으신 어르신은 "무더위에 다리가 아파 주민센터까지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웠는데 직접 찾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대치면 8월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청양군 대치면(면장 이용만)은 농업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내달 26일까지 농업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설립 등기된 법인 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농업법

인으로 대치면은 4월 말 기준 총 46개의 농업법인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최초 시행되는 실태조사로 비정형적인 법인 운영 사례 증가로 농업법인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부실법인 정비 및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으로 현장방문 또는 서면으로 실

시된다. 이용만 면장은 "이번 법인 실태조사 결과 비정형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 농업법인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다소 바쁘시더라도 지역사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일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당진시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한다

지난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실시

당진시가 바쁜 학업으로 인해 평소 체육활동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2016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는 학생들의 스포츠·레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체력

강화와 건전한 여가 선용을 지원해 청소년 생활체육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호서고등학교 운동장과 유곡초등학교 체육관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과 당진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당

진 축구전용구장 등지에서 현재 55개교 67팀, 900여 명이 참가해 축구와 족구, 배드민턴 3종목에서 리그와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 초·중·고등학교 각 종목별 1위 팀은 오는 9월 열리는 충남도 결선대회의 참가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승부보다는 학생

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는 취지가 더 크기 때문에 9월 충남도 대회 이후에도 참가 클럽을 파악해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대회 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를 지난 3월부터 관내 학교 24개교,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불법투기 '꼼짝마'

아산시는 지난 11일, '깨끗하고 집결한 아산만들기' 조성을 위해 신장면 소재 공동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지도·단속 실시해 38건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를 단속했다. 시는 깨끗한 체전준비를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자원순환과장을 포함한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유지원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

할 계획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단속은 매주 월요일, 오는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자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태안군 농기센터 김태수 소장 취임

태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센터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김태수(57) 소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태수 소장은 지난 1979년 경기도 양평군 농촌지도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1989년 태안군 농촌지도소로 자리를 옮겨 기술보급과장, 지도개발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기술개발 및 보급에 힘쓰며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수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촌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갖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며 "태안군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인구증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청양군보건의료원, 제5회 인구의 날 기념 합동캠페인 벌여

청양군은 제5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지난 11일 청양읍 신자리 중심거리 일대에서 출산장려 및 건강생활 캠페인을 벌였다. 군 보건의료원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저출산 사회의 심각성 및 결혼·출산장려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홍보했다. 또 인공임신중절 금지, 모유수유 장려, 비만·탄성질환·결핵 예방, 구강보건,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전용화 보건의료원장은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3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결혼·출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다치녀 출산 및 지역사회 결혼·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구의 날은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1987년 7월 11일 인구문제 논의를 위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도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사회적 과잉 영향에 대해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제정, 올해도 5호째를 맞았다. 청양=정성범기자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리사업 추진

청양군, 공공용지(도로·구거·유지 등) 대상

청양군은 효율적 행정재정 관리를 위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공공용지(도로·구거·하천 등) 공유지, 공유지를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지적(지목불일치) 공유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지목불일치 공유지 정리사업은 각종 관계법령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공용지(도로·구거·하천 등) 중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관리가 어려운 공공용지의 합병이 대상이다. 이에 군은 지목불일치 공유지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 건설도로팀, 농촌개발팀, 하천관리팀 등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고 사업목표를 작성해 389필지에 대해 2017년까지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지 정리사업을 통해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는 물론 국공유지 관리부서 실무추진반구성으로 합법하는 정부 30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풍등 날리고 스탬프 찍고 이색체험 풍성

제14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서동 무왕의 느린우체통 등 이색 체험프로그램들로 인기



'제헌절 태극기달기' 홍보활동 전개

계룡시 제헌절 앞두고 태극기 휘날리는 도시 조성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를 통한 국민 통합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각 가정 태극기 달기 권유 및 폭력을 위해 분장 직원에 전파함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마을 및 아파트 안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해 국방 중추도시 전역에 태극기 물결로 넘쳐나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시 전역에 태극기 물결이 넘쳐날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 운동에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조성한 '태극기 거리'는 계룡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계룡=주선웅 기자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연일 수십만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서동 연꽃축제장이 이색 체험프로그램들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부여 서동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제14회 부여서동연꽃축제는 이색 체험과 볼거리, 이벤트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동과 선화의 영원한 사랑을 기약하는 '사랑의 소원 풍등 날리기'는 매일 저녁 7시30분 공남지의 하늘을 수놓고 있다.

공남지 포룡정에서 매일 선착순 40팀에게 제공되는 사랑의 소원 풍등 날리기는 멀리 떠가는 풍등에 영원이란 약속을 담아 보내는 이벤트로 연인과 부부들에게 인기가 있다.

또, 10만평 연지에 피어난 연꽃의 이름과 생태를 알아보는 '연꽃 스탬프 투어'도 인기를 끌고 있다.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인 '연꽃 스탬프 투어'는 공남지에 피어있는 백련지, 홍련지, 황금연지, 수련지, 빅토리아연지, 가시연지를 돌며 스탬프를 모두 획득한 뒤, 주무대 근처 종합상황실로 가면 예쁜



연씨로 만든 수제 팥찌, 연꽃축제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어 교육을 겸비한 이벤트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지탐험은 축제기간동안에는 매일 운영되고, 내달 21일까지는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마다 열린다.

'무왕의 느린 우체통', '연반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소소한 축제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사랑의 소원 풍등날리기는 기상상태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이 외에도 다양하고 인기 있는 체험이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여에서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통해 엄선했다"며 "여가와 교육이 한데 어우러진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통정

주간기념행사



구본영 천안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시청 봉서홀에서 개최되는 천안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에 참석.

여성대회



황명선 논산시장은 13일 오후 2시 국민체육센터(3층)에서 개최되는 논산시 여성대회에 참석.

한산모시문화제 결과 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는 13일 오전 11시 서천소방사에서 열리는 장항읍 남성의 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7회 한산모시문화제 결과 보고회에 참석.

2030 정책토론회



이용우 부여군수는 13일 오후 2시 부여문화원에서 열리는 부여미래비전 2030 정책토론회에 참석.

비과세·감면규정 위반자 추징

천안시 동남구, 고유업무 직접 사용여부 조사 80건 발굴

천안시 동남구는 상반기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 업무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80건, 13억여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75건, 12억5000만원, 재산세 5건, 6000만원 등이다.

추징 부과대상 항목별도 살펴보면 ▲주택구입시 3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감면 받았으나 기간 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가 63건, 1억5000만원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5건, 1억9000만원 ▲주택 임대사업자가 감면받고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1건, 8억1000만원 ▲산업단지내의 토지 구입 후 3년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1건, 9000만원 ▲영유아보육시설 등이 사용기간 내 매각한 경우가 10건, 7000만원 등이다.

나주시 동남구청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납세자 중 해당 법령의 규정대로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위해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 기자



서천군 정부3.0 마인드 함양 교육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2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서천군 산하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정부3.0마인드 함양 교육은 행정자치부 정부3.0컨설팅단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를 초빙해 '정부3.0 이해와 실천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열띤 강의가 진행되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우리 군 공직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정부3.0의 정신을 다시금 새겨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3.0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력을 핵심가치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목표를 추진중에 있다.

서천=김태선기자

논산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최고' 등급

시민과의 소통·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논산시가 최고등급인 최우수(SA)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226개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자료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평가지표로 구분해 1,2차 평가와 철저한 자료 검증을 통해 5단계(SA-A-B-C-D)로 등급을 매겼다.

논산시는 공약이행도, 목표달성도, 주민소통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시장이 직접 고충민원을 살피는 직소민원팀 운영, 도시 명품 웰빙숲인 논산시민공원 조성 등의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람중심행정' 시정철학으로 시민과의 소통,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진료비 지원강화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6기 출범 2년 현재 시의 공약이행은 순조로운 진도율(52%)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시는 성실한 공약이행을 위해 분기별 자치점검 및 평가 실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실천해 왔다.

이번 평가결과로 논산시가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이 순항 중인 것으로 평가돼,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 논산'이 한층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미래 100년 논산을 향해 앞으로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걸음 한걸음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선6기 공약은 ▲행정 ▲지역경제 ▲지역개발 ▲농업진흥 ▲사회복지 ▲교육 ▲문화·관광·체육 ▲미래 100년 논산을 향해 앞으로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걸음 한걸음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서천군 영농공금증 직접 찾아가 해결해드립니다

농기센터, 찾아가는 당면과제 현장교육·현장감 있는 교육 호평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석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5일간 52개 마을 1000여명의 농업을 대상으로 '여름철 찾아가는 당면과제 현장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13개 읍면별 오전 11시, 오후 2시 두차례 나눠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농작물 생육단계 중 지금시기에 꼭 실천해야 할 농민기술 및 앞으로 수확까지 대비해야 할 점 등을 교육하며 현장의 문제점 등을 직접 보고 농민인들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준다.

교육의 주 내용으로는, 벼 분담 증점관리 대책으로 이삭거름 적기 사용, 벼 쓰러짐 대책, 병해충 방제 방안 등을 다루며 발작물과 시설채소는 현장실물을 활용해 증상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다룬다.

또한, 봄철 고온의 영향으로 최근 늘어난 먹노린재 및 갈색날개매

미충에 대한 긴급 공동방제의 필요성과 방제시기에 대해 설명하고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및 영농시설 사전 안전대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 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충에 대한 피해예방과 영농현황을 더욱 많은 주민에 게 알리기 위해 작년까지 읍면별 2회였던 교육을 4회로 늘려 현장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석희성 소장은 "이번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해충피해 및 집중호우에 따른 병해충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대책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천=김태선기자

부여나성 50년만에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

군수제 구간 85,012㎡ 일부 해제·월함지연접 구간 58,808㎡ 추가지정

부여나성 문화재 지정구역이 약 50여년만에 일부 조정된다. 부여나성은 백제 수도인 사비를 보호하기 위한 외곽 방어시설로 1963년 사적 제58호로 지정됐다.

부여군수 이용우(부여나성 지정구역 중 군수제 구간(군수리, 동남리) 85,012㎡ 일부 해제하고, 월함지연접 구간(쌍북리, 정동리,

석목리) 58,808㎡는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군수제 구간의 경우, 구간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경작지, 우물 등 생활유적이 발견되었을 뿐 부여나성과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월함지연접 구간은 동나성 북단의 나성 통과구간이며, 나성과 연

결되는 도로유구도 확인되었으나 현재 지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비복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이용우 군수는 "이번 해제결정에 따라 문화재 주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월함지연접 구간의 추가지정을 통해 나성과 부소산성을 연결하여 앞으로 세계유산 지정구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을 통해 나성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발굴조사 및 정비를 통해 문화재의 효율적,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은 관련 공고를 거친 후 9월 중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부여=이정복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의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통정

제21회 공주여성대회



오시덕 공주시장은 13일 오전 11시 도 시재생센터에서 열리는 공주문화 프리마켓 흥미진진마당 참여단체 간담회에 참석, 오후 2시 백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1회 공주여성대회에 참석.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김동일 보령시장은 13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 참석.

충남여성자치대학수료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13일 오전 9시 30분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충남여성자치대학 수료식 참석.

제68회 도민체전 선수단 해단식



박동철 금산군수는 13일 오전 11시 웨딩캐슬에서 열리는 제68회 도민체전 선수단 해단식에 참석.

제21회 공주시 여성대회



이연주 공주교육장은 13일 오후 2시 백제체육관에서 제21회 공주시 여성대회 참석.



공주시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나들이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9일 공주메가박스 영화관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 11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나들이'를 실시했다.

문화생활의 기회가 부족한 읍·면지역 아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메가박스 1개관을 대관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인 '도리를 찾아서'를 아동과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

또한 영화관람 전에는 공주소방서 현장 대응단의 지원을 받아 응급처치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영화를 관람한 한 가족은 "집이 농촌에 있어 평소엔 영화를 볼 기회가 적었는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영화를 함께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주시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팀 전소영 담당은 "경제적 사정과 바쁜 일상으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 드림스타트는 하반기에도 가족이 함께하는 영화관람 외에도 치즈체험 프로그램 등 아동과 가족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간의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시간을 제공해 아동들이 밝은 가정환경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정성범 기자

금산군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박차

총 사업비 424억원 투입, 체류공간 확충 통한 농촌활성화·마을공동체 복원 등 추진

금산군은 지역특성과 발전 잠재력에 근거한 신규 성장거점 3개 사업을 포함한 총 10개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총 사업비 424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2016~2020)부터 추진되는 신규 거점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구, 창조 마을 만들기, 시군청의사업 등 3개 사업.

여기에 지난해부터 사업이 시작된 금산을 선도지구, 군북면 일반지구, 군북면 상곡1리 약손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3개를 비롯해 계속사업으로 추진·장대 권역, 적벽강 권역, 진산면 소재지, 서대산 권역 등 7개 권역 사업(334억원)이 추진되고 있다.

금산을 선도지구, 군북면 일반지구, 상곡리 창조마을 지구를 현재 세부설계 용역과 함께 편입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남일면 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구, 부리면 평촌리 시군청의사업, 파초1리·신대2리 창조마을 만들기 등 3개 권역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이곳에는 오는 2020년까지 총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소득증대, 생활기반 개선, 문화복원 등 자생적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

남일면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들어간다. 세부사업으로 유럽고를 행복 플랫폼 품, 이음문화 정미소 조성, 골목길 정비, 하천정비, 역량강화 교육 등 문화복지 커뮤니티의 거점지로 조성한다.



“보령 성주산자연휴양림서 힐링하세요”

15일부터 본격 운영...23일부터 셔틀버스·물놀이장도 운영

산림휴양문화 수요 증가와 캠핑 문화 저변확대로 연간 13만여 명이 찾고 있는 보령의 성주산자연휴양림이 올해에도 피톤치드 가득한 산림욕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성주산 자연휴양림은 3헥타르(30,000㎡)의 면적에 산림문화휴양관 8실과 숲속의집 9동 등 17실의 숙박시설과 취사장, 물놀이장, 야외무대, 야영장,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편백나무 숲, 황토길 등 휴양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다.

시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숙박 시설 보수와 황토길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에도 노후 객실 보수와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성주산의 맑고 시원한 계곡물을 이용해 운영하는 물놀이장을 개장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날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수심이 깊지 않아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인기 만점이다.

아울러 편백나무숲은 맑은 공기로 산림욕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는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발산해 심신 건강 회복 공간으로 인성맞춤이다.

특히, 극성수기인 오는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마다 성주 특산물판매장 → 성주면 복지센터 → 휴양림 입구 → 성주면 사무소 → 성주사지 무료 셔틀버스 운영으로 주차장 문제 해소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도 높였다.

입장료는 개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는 400원이고, 주차요금은 소•중형

2000원, 대형 4000원이다. 보령시민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입장료를 제외한 주차료 2000원, 관광객의 경우 3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 재충전을 하기에 더할나위 없다.

부대시설로는 면적에 따라 숙박(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시설은 7만~13만원, 야영장은 1만~2만 원, 평상은 4000~7000원이며, 물놀이장은 무료이다.

숙박시설은 12일 기준 8월 극성수기까지 예약이 완료됐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전원 1일 오전 9시부터 성주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http://www.brn.go.kr/forest)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야영장 사용 인원 증가로 올해부터는 제2야영장 휴양림 입구 인근도 인터넷 예약서비스를 개시했다.

기타 문의는 성주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www.brngo.kr/forest) 또는 안내사무소(041-934-7133)로 하면 된다.

보령=김태선 기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공주시,분야별 전문가 12명 위촉...위원회 강화운영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 행보에 돌입했다.

시는 11일 공주시청 상황실에서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중소기업 전문가, 소상공인, 법무, 도시계획, 토목,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9명과 유병덕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 등 총 12명을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당연직인 유병덕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조 중

동현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들 12명의 규제개혁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공주시 규제개혁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전달과 함께 위원회의 역할과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앞으로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청취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규제선실이 나 강화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도나 중앙규제개혁위원회 건의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및



변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유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규제개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다.

부리면 평촌리시·군청의 공동체 문화사업에는 20억원이 투입돼 농경문화로 전래되고 있는 물계기 농요와 농부끄끄기기를 중심으로 체험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생태자원 연구, 마을유산 스토리텔링 개발, 노내기 샘 및 공동샘 복원, 야외공연장 조성, 금강여울 생태로 조성 등 전통민속을 바탕으로 역량강화 및 경관개선, 생활기반 확충 등의 사업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기존 추진되고 있던 사업과 신규사업과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하면서 체류공간 확충을 통한 농촌활성화, 마을공동체 복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농촌활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손광우 기자

건강한영양아육성기반 마련성과

보령시가 저출산 시대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에 실효를 거둔 결과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 보건소는 지난 7월 대한간호협회 충남간호사회에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에서 후원한 '제15회 충청남도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에서 보령시 대표로 참가한 영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는 모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충남도내 각 시군 대표로 모유수유 중인 생후 4~6개월의 영아 51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보령시 대표로 참가한 박종미 아기(용천동)가 최우수, 손예준 아기(미산동)가 특별상, 이지민 아기(동대동)가 건강한 모유수유아상에 각각 선정돼 참가 영유아가 모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영유아의 성장발달 상황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검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40만원 이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는 2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는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진 사업이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모와 아기가 건강해지는 모유수유에 대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수유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 등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모유수유 실천율을 끌어 올리는 권장사업 홍보가 특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시대에 임신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인구증가 기여는 물론, 아기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산모의 산후 회복 촉진에도 도움이 많은 모유수유 권장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손광우기자

우리/동네



대전역 청렴캠페인 전개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대전관리역(역장 한기복)은 지난 11일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철도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청렴캠페인을 시행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박차

서산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에 설치

서산시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신부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을 2013년부터 단계별로 공공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다.

2013년은 비표준형 점자블록을 교체했고 2014년은 점자블록 설치 및 교체를 실시했으며 2015년에는 축지도 교체 및 접근로 공사를 추진했다.

올해는 시비 1,2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1,700만원을 투입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시 청사 내 장애인화장실에 유아용거의대와 대변기측면핸드레일을 설치하고 각 읍면동 청사에는 주출입구에 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에 살명점자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고 오는 11일부터 착공해 들어가 이달 안으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 등이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산시는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금산인삼약초정보화마을, 전국 벤치마킹 인기

다양한 체험상품 활성화 방안



지난 11일 청양군 '행복한 부자농촌 만들기' 실무추진위원, 민간팀장 및 행정팀장 등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40여명이 금산인삼약초 정보화마을위원장 한정만과 금산약초유동센터를 방문해 특산물 및 다양한 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했다.

금산약초유동센터의 집하, 가공, 저장 및 여러 시설을 둘러보고 금산인삼약초 정보화마을의 판매 및 체험장에서 쌀 과자 만들기 체험을 진행 후 인삼꽃병 만들기, 약초액자 만들기, 쌀과자 만들기 등 체험상품과 정보화마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산=손광우기자

서산시,엄마랑 아이랑 행복아카데미 운영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

서산시가 행동분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부모 및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12월부터 12월까지 '엄마랑 아이랑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서산시의 롯데마트 서산점 문화센터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하게 됐고, 이번 프로그램은 '딩동댕 플레이 키즈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아동과 엄마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3~4세 아동별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돼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의 경험과 소통으로 상호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아동기 성격형성 등 긍정적 발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추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연평대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 좋은 사람 (MBC 오전 7시50분)



신매뉴 개발 교육을 받기 위해 대영그룹을 방문한 정원(유희진)을 보게 된 승희(오미희)는 이 일을 경주(강성미)가 제해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난다. 한편, 경주는 미선(박정수)에게 3천만 원을 줄 테니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제안하는데...

▲ 사랑이 오네요 (SBS 오전 8시30분)

민수의 사무실에서 하라 웨딩하우스 설계도면을 발견하는 다희. 다희는 민수가 새로 웨딩하우스를 지으려 한다는 사실에 놀라고 설계도면을 몰래 복사해 방석에게 준다. 한편, 해인은 방석을 인터

뷰하고 불량한 태도로 질문을 들던 방석은 책상을 치며 해인에게 버럭 하는데...

▲ 내마음의 꽃비 (KBS2 오전 9시)



줄리아가 연희(임채원)와 동일인들이 아니라 판단한 일란(임지은)과 수창(정희태)은 줄리아를 한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영지(조예란)와 함께 국밥집을 찾은 덕수(민복기)는 밀린 주문으로 바쁜 꽃님(나혜령)을 돕게 된다. 한편, 선호(지은)와 해주(정지연)는 함께 최근 매출이 하락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업체를 찾았다가 빵을 배달하러 온 강욱(이창욱)을 마주치게 되는데...

케이블 명화

▲ 비람과 함께 사라지다 (OCN 오후 3시10분)

금보다 귀한 권력의 상징 '얼음' 총명함은 타고났으나 우의정의 서자요, 잡서적에 빠져 지내던 '덕무(차태현)', 얼음 독점권을 차지하려는 좌의정 '조명수'에 의해 아버지가 누명을 쓰게 되자 그의 뒤통수를 철 묘안을 떠올린다. 바로 서빙고의 얼음을 뜯개로 뜯겠다는 것!

한때 서빙고를 관리했지만 조명수 일환에 의해 파직당한 '동수(오지호)'와 손을 잡은 덕무는 작전에 필요한 조션 제인의 고수들을 찾아 나선다. 그들이 움직이면 '얼음'이 사라진다!

한양 최고의 돈줄 '수군(성동일)'을 물주로 잡고, 도굴 전문가 '석창고(장석)', 폭탄 제조 전문가 '대현(신정근)', 변장술의 달인 '재준(송중호)', 총알베송 마차꾼 '철주(김김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불러모은 덕무와 동수.

여기에 동수의 여동생인 잠수전문가 '수련(민효린)'과 아이디어 뱅크 '정권(천보근)', 유언비어의 원조 '난이(김항기)'까지 조션 최고의 '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3만정의 얼음을 훔치기 위한 본격 작전에 나서기 시작한다!



▲ 니드 포 스피드 (채널 CGV 오후 7시30분)

영화 <니드 포 스피드>는 관객에게 기존의 카레이싱 영화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랍도록 생생한 영상과,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짜릿한 속도감을 경험케 할 것.



복수를 위해 이를 이채 안되는 시간대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토비와 줄리아의 여정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경찰과 현상금 사냥꾼들의 거센 추격까지 따돌려야 하는 일촉즉발의 레이스다.

당신의 모험이 질주한다! 라이벌 '디노' 도미니 쿠에와의 레이스에서 사고로 친구를 잃고 누명을 쓴 채 감옥에 수감된 '토비'(아론 폴).

그는 가석방과 함께 복수를 계획한다. 바로 슈퍼 카를 잡고 밤에는 스트리트 레이스 '데 리온'에서 '디노'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뉴욕에서 대회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거리는 4,000km, 남은 시간은 단 이를뿐이다.

게다가 '디노'는 '토비'를 잡는 자에게 현상금을 내걸고 경찰들까지 '토비'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Large table showing TV program schedule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across various time slots.

신성대,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종합우승 차지



당진 신성대학교(총장 김병욱) 태권도경호과 학생들은 지난 9일 열린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신성대(총장 김병욱) 태권도경호과 학생들은 지난 9일 열린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연대회 품새 부문 1위에 노관형(1학년), 엄용빈(1학년), 이현석(1학년), 박찬수(1년), 안태양(1년), 김응제(2학년), 이병주(2학년), 홍영호(2학년), 황현진(2학년)이 우승했다.

부여교육지원청, 서동연꽃축제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훈)은 2016년 부여서동연꽃축제에 자유학기제 동아리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교가 함께 참여했다. 아름다운 백제의 문화를 매일 매일 접하며 자라는 부여의 학생들은 행사 5일째 '부여 청소년 예술제'이라는 이름으로 저마다 학교에서 배운 본인들의 꿈과 끼를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 기회로 인해 참여 학생들은 부여군민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자신감 회복에도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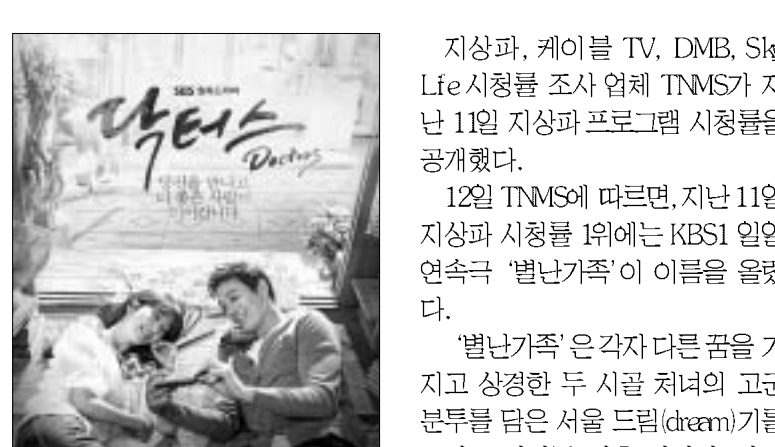
아산시 이순신빙상장, 여름방학특강 스케이트교실 개설



아산시 이순신빙상장은 여름방학의 방상장으로 개관 후 매년 학을 맞아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름방학특강 스케이트교실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개관한 이순신빙상장은 연면적 3,869㎡에 가로 30M 세로 61M의 충남 유일 국제규격빙

상 스케이트교실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접수기간은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4개반 총 80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이순신빙상장 매표소에서 한다. 시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스케이트를 체험할 수 있고, 무더운 여름 시원한 빙상장에서 방학을 보낸다면 일석이조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며 "여름방학기간 동안 어린이 및 청소년의 체력증진은 물론, 은빛방판을 활주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 적극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이용객의 빙상장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개인스케이트를 지참할 경우 입장료만 결제하면 이용가능하다. 아산=리광주기자

7월 11일 지상파 시청률 순위... '닥터스' 월화극 1위



지상파, 케이블 TV, DMB, Sky Life 시청률 조사 업체 TNMS가 지난 11일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률을 공개했다. 12일 TNMS에 따르면, 지난 11일 지상파 시청률 1위에는 KBS1 일일연속극 '별난가족'이 이름을 올렸다. '별난가족'은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상경한 두 시골 처녀의 고군분투를 담은 서울 드림(dream)기를 그린 드라마로 배우 이시아, 김진

우, 김은혜, 신지훈, 전미선 등이 출연한다. 일일연속극과 아침드라마가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률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SBS 월화드라마 '닥터스'가 전년대비 18.4%를 기록, 종합 시청률 3위를 지켰다. 이어서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가 시청률 9.8%를 기록했다. 반면, KBS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이드'는 시청률 TOP 20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URL.



세종시교육청, 2016 자유학기 학부모지원단 연합발대식 개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최고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시청, 학교 관계자와 관내 18개 중학교 15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2016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연합발대식(이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일일특강, 호서고 학생들과 만남 가져 현대제철 일일특강 강사가 이번에는 호서고 학생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현대제철 의전 홍보팀 이승희 팀장은 호서고 1, 2학년 800여명을 대상으로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학교 대강당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행사 실시 지난 7일 공주 한일고 학생,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계룡산 민족재 생태이동로 주변에 서식하는 돼지풀과 미국자리공 등 외래식물을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탄천중학교(교장 이용환)는 지난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노인요양시설인 '공주 효센터(충남 공주시 이인면계서호(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림로텍스 공주산림휴양미에 보도블록 무상제공 공주시 구성면에 위치한 한림로텍스(주)가 공주산림휴양미를 산책로 조성엔 필요한 건설자재를 무상 지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도블록 전문 생산업체인 한림로텍스가 스톤블록과 테라페이즈(전통) 등 3천만원 상당의 자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충청통계청, 지역통계 발전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12일 나라리움 대전센터에서 세종시 사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2016년 세종시 사회조사' 개발을 위한 지역통계 발전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헌혈왕'으로 유명한 최문희 충남도 개발정책팀장

헌혈 600차례 돌파 대기록 '화제'

'공무원 헌혈왕'으로 유명한 최문희(55·사진) 충남도 개발정책팀장이 헌혈 600회 돌파 대기록을 작성했다. 도에 따르면, 최 팀장은 12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 공주대 헌혈센터에서 600번째 헌혈을 마쳤다. 헌혈 1회당 400~550ml의 혈액을 뽑았던 점을 감안하면, 성인 남자 63명의 혈액량에 달하는 317l의 피를 생명이 위독한 생면부지 이웃을 위해 내놓은 것이다. 최 팀장의 이번 기록은 충청권 최다이자 전국 세 번째이며, 600회 달성 헌혈 기록 중에서는 역대 최연소에 해당한다. 현재 전국 최고 헌혈자는 723회를 달성하고 있으며, 2위는 680회에 달한다. 최 팀장의 헌혈 600회 대기록의 출발은 지난 1979년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를 찾은 헌혈차에서 시작했다. 피를 나누는 '따뜻한 이웃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경



험을 바탕으로 14년 동안 2개월에 1차례씩 헌혈침대에 올라 팔을 걷어 올렸다. 그리고 지난 1998년부터는 새로운 헌혈 방법 도입과 헌혈에 대한 법적 기준 변경에 따라 매달 두 차례에 걸쳐 헌혈을 실천해 왔으며, 1994년에는 골수 기증등록도 마쳤다. 헌혈 후 받은 증서 중 51매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KBS방송국, 개인 등 9개 기

관·개인이 쾌척했다. 나머지 증서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증할 계획이다. 이같은 활동으로 최 팀장은 지난 2009년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최고 기록 공무원' 선발에서 '공무원 헌혈왕'에 뽑혔다. 또 정기적인 헌혈과 기부 외에도 매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탁월한 업무 추진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09년에는 '참된 공무원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대한민국 공무

● 동정 ●
클럽 창립 59주년 기념식

박흥용
직장새마을운동대
전광역시
협의회장
= 13일
오후 6시 라온컨벤션호텔에서 개최되는 클럽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국제로타리 3680지구 대전로타리클럽 제59대 회장으로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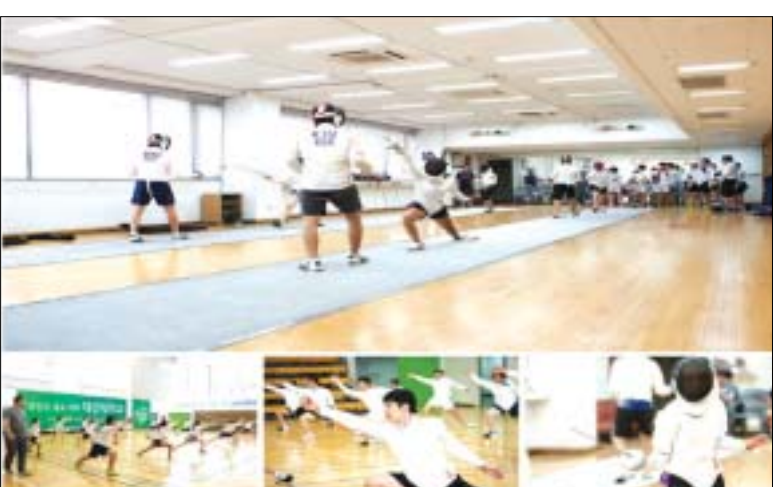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유회승

교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유회승 교수가 1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년 세계과학기술인대회에서 '제26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유 교수는 지난 해 9월 발간된 대한한의학회지 제 36권 3호에 게재된 '폐암 환의 평가 도구 개발 기초 연구' 논문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폐암환자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평가 방법 도구를 개발한 것으로 한의학의 객관화, 과학화에 이바지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유 교수가 연구책임 맡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편 유 교수는 통합암연구센터 센터장,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대한통합암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2007년 국내 최초로 미국국립암연구소 최상준레프로그래를 완료했고, 세계 3대 명사전에 등재됐다. 송병배기자

느리울초 합창부, 음악경연대회 은상



대전 느리울초등학교 합창부(지도교사 김민경)는 12일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제28회 초·중학생 음악경연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수상했다. 김정환기자



대전대, 펜싱 전지훈련 메카로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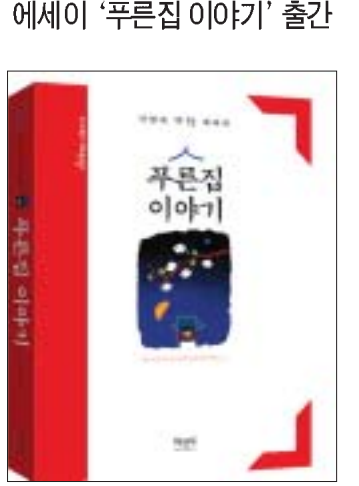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 거두며 전지훈련 메카로 부상
대전대학교 펜싱부가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전지훈련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 체육부에 따르면 지난 7일과 11일 홍콩 클럽 연합팀과 해남군청 펜싱부가 대전대 맥센터를 찾았다. 이는 최근 펜싱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전대 펜싱부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다. 최근 4~5년 사이 대전대학교에는 전국각지의 실업팀을 비롯하여 상가폴, 몽골 등 국내외 대표팀까지 대학을 방문하고 싶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팀들이 대학을 전지훈련지로 낙점한 이유에는 펜싱부 도슨기 감독의 남다른 리더십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 감독은 주입식 훈련을 지양하며 자율적인 환경에서 이들의 승부욕과 자존심을 끌어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전대 펜싱부는 올해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 2개 획득을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미소가득한내과 종합검진센터' 개원식



대전-충청지역 의료환경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
대전지역 종합병원급 대형 검진센터가 지난 9일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해, 취약한 것으로 지적돼 온 대전-충청지역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미소가득한내과 종합검진센터(대표원장 김동호, 정지인, misomedical.co.kr)는 지난 9일 권선택 대전시장, 박법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장종대 대전시구청장, 김영일 대전시 구의사회장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미소가득한내과 종합검진센터' 확장인 개원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미소가득한내과 종합검진센터'는 대학교수 출신의 내과,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전문의 등 80여명의 분야별 전문의가 상주하며, 외래진료 및 종합검진센터, 내시경센터, 영상의학센터, 진단의학센터 등 4개 센터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50여명의 의료진이 질 높은 원스톱 종합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지역 검진센터 최초로 대학병원급 최신형 위-대장 HQ200 올림푸스 내시경을 비롯해 도시바 64채널 저선량 3DCT, 최고의 골다공증 진단기로 손꼽히는 미 홀로지사의 호라이즌 등 최첨단 장비도 도입했으며, 첨단의료장비가 설치된 출장검진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검진과목도 위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유방암촬영, 위장조영촬영, 골다공증, 동맥경화, 스트레스, 심전도, 체성분, 안압-안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일반검진은 물론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5대 국민암을 찾아내는 질 높은 암검진 서비스와 학생검진, 구강검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병배기자

변동중 박정희 교장 지전



에세이 '푸른집 이야기' 출간
대전변동중학교 박정희 교장이 교직생활 35년의 에피소드와 장애자녀를 키우는 애환을 엮어, 자전 에세이 '푸른집 이야기'를 출간했다. 올 8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박정희 교장은 1981년 고등학교 윤리교사로 처음 교단에 선 이래 한 학생 한 학생 모두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힌 아이들에게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왔던 우리도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주어진 임하는 곳이면 봉사의 손길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청양군 화성면 새마을협의회 남녀지도자들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
청양군 화성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이선호, 최정숙) 남녀지도자들은 지난 11일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용당리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내부 청소 및 주변의 잡초제거와 일손부족으로 볼수지 못한 봉사일을 도왔다. 청양=정성범기자

기고

‘브렉시트’ 단기충격 이후 구조적 변화에도 대비를



강유덕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유럽팀장

다소 줄어든 양상이지만,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계 경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런던은 국제금융의 중심지이며, 영국계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뻗어있다.

둘째, EU 탈퇴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브렉시트를 보는 시각은 작게는 영국만의 문제라든가 견해부터 크게는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이와 같은 경고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소식과 맞물려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다. 브렉시트의 주요 이슈(이민, 주권보호)를 미국 대선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상황별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유류가 과도한 시장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브렉시트가 2-5년에 걸쳐 진행될 확정된 시안이라면, 수없이 등락을 반복하는 유럽발 소식에 대해 일회성 대응은 필요 없다.

우선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대외건전성 유지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거시경제 운영당국은 물론, 개별기업에도 해당된다.

브렉시트가 어떠한 결말을 갖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극적 반전에 의한 국민투표 결과의 철회, 아니면, EU 회원국인 경우 수출은 감소할 소지가 높다. 산유국의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다행히 우리 경제의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 훨씬 개선된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 단기부채의 비중이 높지 않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외환보유고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상황별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유류가 과도한 시장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브렉시트가 2-5년에 걸쳐 진행될 확정된 시안이라면, 수없이 등락을 반복하는 유럽발 소식에 대해 일회성 대응은 필요 없다.

우선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대외건전성 유지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거시경제 운영당국은 물론, 개별기업에도 해당된다.

브렉시트가 어떠한 결말을 갖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

사설

체불업체 시장 퇴출 마땅하다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지난달 28일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약자·서민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체불근절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등의 대금이 제 때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과거 체불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합의한 경우 등이다.

정부는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권력 도전 엄단해야 한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치어 숨지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경찰이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체제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공무원 상대 흉기 사용, 관공서 내 흉기나 폭발물 등 위험물품 휴대, 사망·중상해 등 공무원 피해가 큰 사건,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을 ‘주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분류해 일선 경찰서 강력팀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

해가 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범행 동기나 소지한 흉기 종류, 흉기 소지 경위 등 범행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이나 살인미수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물론,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을 때도 반드시 압수하고 추후 검찰과 협의해 몰수 조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1년 595명에서 2012년 684명, 2013년 539명, 2014년 737명, 2015년 92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는 적극적 형사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기고

실용화를 위한 기초 생명과학 연구의 중요성



이연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공학과 과장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작을 연구하면 그 다음에는 이러한 기작을 활용하여 어디에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인류 역사상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온다.

생명공학 역시 생명현상을 지배하는 가장 기초적인 물질과 현상의 연구과정에서 DNA라는 물질이 밝혀짐으로써 탄생되었다. 이제 DNA를 중심으로 생명의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생명공학은 모든 자연의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기초분야로 연구의 폭이 넓어졌다.

예를 들면, 아주 극소량의 DNA로부터 특정 부위의 DNA를 대량 생산하는 유전자 증폭기술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

합효소 연쇄반응) 기술은 DNA 복제 과정 메커니즘을 밝힌 아서 콘버그, 특정 DNA를 대량 증폭하는 PCR 방법의 고안자인 캐리 멀리스, 온천에 있는 세균에서 고온에서도 DNA를 합성할 수 있는 중합효소를 발견한 사이키 등 과학자들의 기초 연구 성과가 쌓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식물에 외부 유전자를 도입시키는 방법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미생물인 아그로박테리움의 생존 기작을 이용한 것이다. 아그로박테리움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식물 DNA에 삽입시켜 생존하는데 과학자들은 이 기작을 이용하여 유용한 유전자를 식물체내로 삽입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최근에 떠오르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경우도 유사한 기초 연구가 바탕이 되어 활용성이 증대된 경우

이다. 세균은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에 침입했던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하면 바이러스 유전자를 절단해서 파괴해 버림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데 이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유전자 가위 기술이 탄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들에서 보았듯이 응용 실용화 기술들은 생명현상의 원리를 규명하는 수많은 기초 기반 연구가 밑받침되어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기고

피서지 ‘몰카’ 이제그만!



주하정

이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경장

장마가 끝난 후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가족 또는 친구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바다, 계곡 등 피서지로 떠난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돌아갈 휴가가 성범죄로 인하여 악몽으로 남지 않으려면 피서지에 유독 급증하게 되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 수칙을 알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피서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1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적발됐을 시 촬영물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국가수복원작업을 통해 사건 이전 자료까지 모두 복원이 가능하여 혐의 인정이 쉽지만,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휴대용을 이용한 사진촬영이 일상화되고 첨단화된 변종 카메라까지 등장하면서 몰카의 수법이 더욱 다양화됨에 따라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몰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른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경계를 하며, 렌즈의 반짝거림이나 촬영음이 들리면 즉각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여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여성안전 특별치안 대책’과 연계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앱’ 등을 통한 다각적 신고접수 경로를 마련하고, 여름과출소를 운영하는 등 피서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뿐 아니라 지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서객 안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즐겁게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휴가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오늘의 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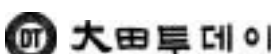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of news items, including dates and titles.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비즈니스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Table with columns for publication details: 발행·편집인, 회장,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경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인쇄처, etc.



생선살 입니다
밀가루가 아닙니다

어묵당의 제조공장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아
어묵고로케와 다양한 종류의 어묵을 가공하는 식품업체입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어묵생산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어묵당은 온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한 먹거리** 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06번지 에브리데이 이마트 옆